

***디모데전서 5장**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신분과 연령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친다. 성도들(1-2), 과부들(3-16), 교회 지도자들(17-25)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. 한마디로 말한다면, **교회 식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다.**

< 5장 요약정리: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? >

1부 일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? (1-16절)

1-2절 권면의 요지: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대하고, 섬기라.

***연로한 이들을 책망하지 말고, 부드럽게 권면하라고 말한다.**

3-4절 참 과부를 존대하라. 가족이 있으면 먼저 돌보게 하라.

5-6절 *외로운 자: 홀로 지내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. 사도는 참과부와 거짓 과부를 비교하여 설명한다.

7-10절 참 과부에 대한 규칙: a. 가족이 없는 사람 b.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c.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d.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사람 e. 60세 이상 되고,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재혼하지 않는 사람 f. **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:** 자녀를 기르고, 나그네를 대접하며, 성도의 발을 씻기고, 구제하며, 선한 일을 좇는 사람이다.

11-15절 젊은 과부에 대한 경계: 사도의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

16절 과부를 돕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시한다.

==> 교회는 구제를 통해 특별히 약자에게 관심 많으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.

2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? (17-25절)

17절 장로들을 존경하되, 목회자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.

18절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하도록 생활비를 감당해 주어야 한다.

19-21절 장로에 대한 송사와 비난은 아주 신중해야 하지만, 범위한 사실이 밝혀지면 **편견 없이** 공개적으로 엄히 꾸짖어야 한다.

22절 *경솔히 안수하지 말고: 직분자를 신중히 세워라.

23절 디모데의 건강(위장)을 위해 처방약처럼 포도주를 조금 쓰라.

24-25 악행과 선행은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되고,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심판과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.

***결론:** 교회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하며, 분명한 처우가 필요하다.